

教權 回復



中央大 總長 文 炳 鍊

무릇 敎育은 知識을 넓히고 人格을 涵養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과거 傳統社會에서의 敎育이 倫理나 道德과 같은 當爲의이며 規範的인 知識과 品行을 강조한 반면 오늘의 敎育은 과학에 기초한 合理的 思考 能力과 機能의이며 事實的인 情報과 能力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敎育은 人格指向의 敎育이며 현재의 敎育은 機能指向의 敎育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傳統的인 敎育에서 강조되는 敎授의 特性은 고매한 知識과 더불어 道德의이며 品位 있는 人格과 行實이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合理的 思考 能力과 機能的인 知識을 敎育者의 중요한 特性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過去의 社會에서는 尊敬 받을 만한 ‘스승像’이 부각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社會에서는 道具的 知識이 풍부한 ‘敎授像’이 敎育者의 理想的 特性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근래에 와서 敎授의 人格의 影響力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심지어는 敎授의 學生에 대한 要求에 否定的 反應을 보이는 學生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이러한 현상을 ‘敎權의 弱化 또는 不在’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敎權이 確立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人格敎育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自明한 理致이며 知識敎育마저도 萎縮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弱化된 敎權의 回復은 오늘날의 韓國 大學敎育을 正常化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課題라 아니 할 수 없다. 敎권의 회복은 단순히 敎授의 權威를 回復하자는 敎授의 利己的 欲求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敎育의 本來的 機能을 회복하고 學生들의 敎育 權利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敎育的이며 가장 利他的인 發想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敎權의 回復 問題를 논할 때, 과거의 學生과 오늘의 學生, 또는 과거의 敎授와 오늘의 敎授를 比較하는 復古的 對比法을 흔히 사용해 왔다. 더불어 敎授의 權威가 回復되어야 한다는 規範的 當爲論을 전개하는 感傷的 敎育倫理 回復論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이 過去로 돌아가려는 생각에는 항상 失敗의 陷穽이 있기 마련이다. 즉 뜻은 좋으나 現實的으로 그 實現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많은 敎育者들은

이미 잘 認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問題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새로운 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歷史·文化的 현실에서 美國式으로 教授와 學生間에 責任과 權限을 明細化하여 兩者間의 契約을 체결하는 契約式 教授—學生關係도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過去 方式대로 教授의 權威를 學生에게 一方의으로 強要할 수 없을 것이며, 現實的으로 權威 있고 人格이 고매한 스승像을 오늘의 教授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韓國 社會의 政治的 및 社會的 여건이 교수들의 權威를 弱화시키는 方向의 逆機能을 해왔던 現實을 감안할 때, 敎權 回復의 問題는 즉흥적인 아이디어나 소극적인 政策의 變化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도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常識이다.

최근 들어 政治·社會의 民主化 趨勢와 더불어 大學의 自律性과 大學 管理行政의 民主化를 위한 論議 및 政策의 變化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大學 管理體制의 改善을 위한 論議가 民主化이건 自律化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방향은 敎權을 回復하고 伸張하는 方向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敎權의 回復은 民主化나 自律化보다 앞서는 基本的 大前提이며, 오늘날 韓國 大學의 普遍的 要求임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教授의 學生에 대한 知的이며 人格的인 影響力은 教育의 過程에서 必須的인 要件이며, 敎權이 喪失된 상태에서 教授의 教育的 影響力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敎權의 回復을 위해서는 敎權의 生成 源泉에 대한 分析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보통 敎權의 源泉은 制度나 社會的 規範으로부터 正當化되는 歸屬的으로 부여된 敎權과 教授 스스로의 能力과 成就 및 教授의 學生과의 人間關係를 통해 스스로 획득하게 되는 成就的 敎權으로 大分될 수 있겠다. 따라서 오늘날 韓國 大學의 敎權 弱化 問題는 바로 이 두 가지 形態의 敎權의 源泉에서 問題가 發生한 것으로 조명해 볼 수 있겠다. 즉 既得權 形態로 부여된 歸屬的 敎權상의 問題로는 教授의 權威나 教育 管理上의 影響力을 萎縮시키는 形態의 제한 학내·외적 制度와 政策 및 社會規範을 들 수 있으며, 教授가 스스로 획득해야 할 成就的 地位上的 問題로는 教授 자신의 學問 및 人格의 측면에서의 卓越性을 과시하지 못한 데서 연유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弱화된 敎權을 回復하기 위해서는 教授의 個別的 노력과 더불어 教授의 學問的 影響權의 증대는 물론 社會的 地位나 權威를 高揚시키는 方向으로의 社會制度 및 規範의 改善이 요청되는 것이다. 즉 敎權의 問題는 교수 스스로의 責任으로만 돌릴 수 없는 問題로서 大學과 社會가 敎權을 提高하고 行事할 수 있는 힘을 教授에게 부여할 때만 敎權은 補強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敎權이 없는 곳에 진정한 教育이 있을 수 없고, 大學과 社會에서 教授의 權威와 影響力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敎權의 回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